



同窓會報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재단법인 청관장학회·청석장학회

제 194 호

2017년 11월 11일

발행인 : 이 규 택

편집인 : 이 창 득

Home page :
www.snueaa.or.kr

E-mail :
snueaa@hanmail.net

(우)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1010호(충정로 3가, 피어리스 아파트) 전화 : (02)720-8116, 8120 FAX : (02)720-8117

2017년 추계역사문화탐방



▲ 11월4일~5일 마곡사 경내에서 단체사진



▼ 대둔산 케이블카



▲ 추동습지

국가 대표 선수, 서울사대와 교육

권 오 량 (영어 68)
서울대 명예교수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영어교육이 시작된 해는 1883년이다. 1882년 미국, 영국, 독일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여, 역관 양성이 필요하자, 독일인으로 청국을 거쳐 우리나라의 조정에서 관리로 일하고 있던 뮐렌도르프(목인덕)에게 고종황제께서 명하여, 동문학(同文學)이라는 관립 영어학교를 세웠다.

교관은 영국인 전신기사와 두 명의 청국인이었는데, 청국인 중 한명은, 14세에 미국에 유학하여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이었다. 교관들이 조선어를 하지 못하니, 거의 영어로 가르쳤다. 3년 후, 동문학은 문을 닫고, 그 대신 육영공원이라는 관립학교가 세워지는데, 이 학교는 관립으로는 최초의 근대식 학교였고, 거의 모든 과목을 영어로 가르쳤는데, 교관은 미국의 푸트 공사가 본국에 의뢰하여 초빙한 세 명의 교관들이었는데, 매우 우수하였다고 한다. 또한 배재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정신여학교 등의 사립학교에서도 주로 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영어교육이 시작되었으며, 이들 학교에서도 교수용어가 영어인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시작한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은 일제시대에 수난기를 맞이한다. 영어보다는 일본어가 중요한 과목으로 되었고, 일본인 교사들에 의한 문법 번역식 수업이 정착되고, 수준 낮은 일인 교사로 인해 질적인 저하가 있었다. 이런 수준 낮은 일인 교사들에 대해 한국인 학생들은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1920년 5월 10일 서울의 보성고등보통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일본인 영어교사의 발음이 나쁘다면서 교체를 요구하며 동맹휴학을 하였고, 1927년 11월에는 함경북도의 함북경성고등보통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일본인 교사가 자격이 없다면서 교체를 요구하며 동맹휴학을 한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열과 일본인에 대한 저항의식이 합쳐져서 나온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당시 보성고등보통학교 정대현 교장은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털어놓고 있다. 그는 학생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발음을 잘 배웠더라도 일본인들이 다시 망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조선 사람으로 영어선생을 얻기도 어렵고 하여, 그 일본 사람을 둔 것인데, 지금 이같이 학생 측에 반대가 일어나니, 학교라 하는 것은 학생을 위하는 곳인데, 장차 어찌 하여야 좋을지 아직까지 선후책을 결정치 못하였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조선일보, 1920. 5. 12)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돌입하면서, 영어를 미영 귀축(鬼畜)의 언어라고 하여, 교육을 금지시키고, 일본어 사용을 강제하면서, 암흑기를 맞이하였던 영어교육은 해방과 더불어 다시 우리나라 영어교사들의 몫이 되었다. 해방 이후의 우리나라 영어교육에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출신들은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서울사대 출신들은 전국에 의무 배정이 되었는데, 각 시도에서 이들이 교육의 중심에 섰고, 모범이 되었던 것이다. 지방의 경우는 서울사대 출신 교사는 신규 교사라도 가장 좋은 학교에 발령을 내어서 특별대우를 하였다. 1990년대에 의무발령제가 없어지고 임용고사에 의한 채용으로 전환되면서, 서울사대 출신의 교직 진출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서울사대 출신의 실력은 인정을 받아왔다. 그러나 단순히 인정을 받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필자는 서울 사대에서 강의를 할 때, 필자의 강좌를 처음 듣는 2학년 학생들에게 학기 첫 시간에 영어교육과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을 하곤 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를 설립한 국가와 국민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여러분들이 우리



나라 최고의 영어교사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을 선도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을까? 서울대학교 각각의 단과대학은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를 배출하도록 만들어졌고, 막대한 국가 예산과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영어교육이라는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가 되어야 한다. 가장 영어교육과의 목적에 충실한 것이 가장 사범대학의 목적에 충실한 것이고, 가장 사범대학의 목적에 충실한 것이 가장 서울대학교의 목적에 충실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간 바다 건너 동경대학, 북경대학에서도 여러분과 같은 나이의 학생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각국의 영어교사들이 모인다면 여러분은 바로 국가대표 선수이다. 서울사대 영어교육과 출신이 북경대학이나 동경대학 출신보다 영어실력이 떨어지고 영어교육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모자란다면, 국가대표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미안한 일이 될 것이다. 그냥 미안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수준 낮은 영어교육을 받게 되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여러분이 모두 교사가 되고 싶어도 교사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공립 중등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의 채용 인원도 많지 않아서, 교사가 되는 문 자체가 턱없이 좁다. 그렇지만, 다른 길도 있다. 서울사대의 목적에 중등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여러분 중에 일부는 계속 공부해서 교수나 교육 전문가로 성장하여 교육에 기여하는 길도 있다. 물론 대학원을 가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도 많

다. 그러나 뜻이 간절하면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제3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 서울사대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 교사로서의 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서울사대 출신답게, 각자의 직업 안에서라도 교육과 관련되는 분야의 지도자로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어디에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행에 서울사대 출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사회,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서울사대 출신의 전문성이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냥 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더라도, 국가, 사회의 교육정책 입안, 정책의 시행, 교육의 평가 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의견을 제시하고, 행동에도 옮기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어쨌거나 국가가 서울사대를 세워서 사람을 길러내는 목적은 교육자를 만드는 것임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 서울사대가 대한민국 교육의 총본산이라는 말에 걸맞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세월이 흐르고 나니, 중등학교 교사로 나간 졸업생들도 있지만, 교육 전문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대학원을 마치고 유학을 가고 계속 공부를 하여서 교수가 된 졸업생도 있다. 비록 교육 현장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서울사대 출신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기여하는 졸업생들도 많다. 그냥 사범대학이 아니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존재하는 이유를 좀 더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졸업생들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會長 動靜 (2017. 6. 1 ~ 9. 30)

- 7. 18 제5차 청관장학회 이사회 주관
제3차 청석장학회 참석
- 8. 28 사범대학 장학금 수여식 참석

동창회 來訪 人士 (2017. 6. 1 ~ 9. 30)

- 강의정(영어 61) 전여의도고 교장, 청석장학회 이사장, 본회 감사
강남구청교육발전자문위원
- 김영애(생물 64) 전 대치중 교장, 본회 조직부 부회장
- 김유미(국어 89)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 박창래(국어 86)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 변주선(영어 60) 대림성모병원 행장원장, 본회 전 동창회장

- 손영실(사회 98) 변호사, 청석장학회 이사
- 안수진(국어 90) 서울고 교사
- 우한용(국어 68) 서울대 명예교수, 국어교육과 동문회장
- 이규석(지학 66) 전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회장,
늘푸른포럼 회장, 본회 대외협력부 부회장
- 이재홍(국어 87) 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
- 이준순(국어 76) 전 서울학생교육원장, 본회 홍보부 부회장
대한민국미래교육연구원 원장
- 임동호(교육 61) 전 사학연금 상무, 본회 총무부 부회장
- 전영식(국어 84) 중경고 교장
- 전태원(체육 72) 전 사범대 학장, 모교 명예교수,
청관 및 청석장학회 이사
- 조상주(국어 84) 경동고 교감
- 최기숙(체육 65) 전 자양고 교장, 본회 여성부 부회장
- 홍태식(국어 67) 전 명지전문대 교수

■ 제5차 청관장학회 이사회 개최(7.18)

지난 7월 18일(화) 오전11시 동창회 회의실에서 제5차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안건은 2학기 장학금 지급에 관한 건으로 허현호 동문(수학 67)외의 기부금 20백만원으로 7명에게 지급될 내용이다. 2학기 장학금은 수익금 감소로 장학금 규모가 축소되어 동문의 기부금 위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모교 장학실무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기타 안건으로 현재 학부생에게만 지급하는 장학금을 대학원생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의 장학금 지급 규모로 다소 무리가 있어 차후 재정이 좋아지면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다.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은 8월 28일 모교에서 열렸다.

■ 제3차 청석장학회 이사회 개최(7.18)

지난 7월 18일(화) 12시 동창회 회의실에서 제3차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제1호 안건은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에 따른 정관 변경이다. 지난 6월 22일 청주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득하여 기본재산의 10%인 20백만원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여 향후 3년간 6학기에 걸쳐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른 기본재산의 감소로 정관을 변경하여 해당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호 안건으로 장학금 지급 규정의 개정안이다. 기존의 장학금 지급 규정을 현 장학회의 운영 상황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전면 개정을 하였다. 제3호 의안으로 2학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안건으로 지급 규모는 350만원 내외이다. 지급 대상은 충북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포함하여 2명으로 등록금의 70%이내이다. 대상 학생 선정은 모교 장학실무위원회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을 추천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기타 안건으로 지난 2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무상임차계약의 내용대로 사무실 관리비의 50%를 청석장학회에서 지급기로 결의하였다. 연간 부담액은 100만원 이내일 것으로 예상된다.

■ 2017년 2학기 장학금 합동수여식(8.28)



지난 8월 28일(월) 오전11시 모교 교육정보관(10-1동) 101호에서 청관, 청석, 천재교육, 관사, 사범대 발전기금 및 교

육연구재단의 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수여식에는 모교 학장단, 청관장학회의 이규택 이사장, 청석장학회의 강 의정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시우 상임이사, 김영애 이사, 최기 숙 이사, 이규석 이사, 신정숙 이사, 손영실 이사가 참석하여 장학생들을 축하하였다. 특히 청석장학금이 처음 수여되는 자리여서 손영실 이사가 축사와 더불어 장학회의 소개도 함 께 하였다. 장학금은 청관장학금이 17,371천원으로 7명, 청 석장학금이 3,792천원으로 2명 최용준동문(수학 61)의 천재 교육 장학금이 51,553천원으로 20명에게 수여하였다. 동문 관련 장학금 규모는 총72,716천원이며 수여자 명단은 아래 와 같다.

▶ 청관장학생 명단(7명 : 총 17,371,000)

학과	성명	학년	장학금액(원)
사회교육과	이 지 민	4	2,442,000
지리교육과	장 아 린	3	2,679,000
수학교육과	김 석 범	1	2,450,000
수학교육과	김 규 민	4	2,450,000
수학교육과	빈 건 관	3	2,450,000
수학교육과	김 동 환	3	2,450,000
수학교육과	윤 예 립	1	2,450,000

▶ 청석장학생 명단(2명: 총 3,791,900)

학과	성명	학년	장학금액(원)
역사교육과	엄 소 윤	3	1,709,400
물리교육과	박 태 건	1	2,082,500

▶ 천재교육 장학생 명단(20명 : 총 51,553,000)

학과	성명	학년	장학금액(원)
교육학과	유 상 원	1	2,442,000
국어교육과	나 상 수	3	2,442,000
영어교육과	이 성 은	4	2,442,000
독어교육과	권 승 현	2	2,442,000
불어교육과	신 병 호	3	2,442,000
사회교육과	정 효 환	3	2,442,000
역사교육과	유 동 현	4	2,442,000
지리교육과	손 정 훈	1	2,442,000
윤리교육과	이 도 연	4	2,442,000
수학교육과	최 재 완	1	2,450,000
수학교육과	최 동 민	1	2,450,000
수학교육과	윤 용 호	4	2,450,000
수학교육과	남 아 영	1	2,450,000
수학교육과	추 호 진	2	2,450,000
수학교육과	김 중 민	4	2,450,000
물리교육과	문 형 탁	3	2,975,000
화학교육과	문 승 연	4	2,975,000
생물교육과	고 정 욱	3	2,975,000
지구과학교육과	박 주 혁	1	2,975,000
체육교육과	김 성 진	3	2,975,000

청석장학회 선생님들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엄소운이라고 합니다. 우선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장래희망은 언제나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훌륭한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물질 양면으로, 항상 세상에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응원의 뜻으로 알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초·중학교 때 어렵게 생각하던 역사라는 과목을 고등학생이 되어 만난 한 선생님 덕분에 어떻게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과 학생들이 '필요로 한 것', '알아야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선생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분을 본받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사범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며 교육봉사 활동 등으로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저 스스로의 학교생활을 돌아보면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선생님을 신뢰하고 좋아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로 교사의 무신경함이나 방심 등으로 상처를 받는 학생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무게만큼 선생님은 무엇보다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다짐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청석장학회에서 베풀어 주시는 나눔의 가치를 앞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항상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수혜받은 장학금으로 학비에 보태며 열심히 공부하는 한편 최근에 그만두어야 했던 과외 아르바이트 대신 지역 멘토링 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22일

엄 소 운 드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따뜻한 진심입니다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는 천재교육의 학습 봉사단.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더 좋아진다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열심히 발로 뛰고 아이들과 눈을 맞추려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의 꿈, 천재교육이 응원하겠습니다.

천재교육



☉ <꿈이 자라는 천재 수학교실>이 환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서울성모병원 어린이학교에서
주 1회 <꿈이 자라는 천재 수학교실> 수업 진행

☉ 착한 기업으로 가기 위한 동행, 천재교육이 함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습교재 지원 / 장학금 후원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데이터 지원 / 고도 약시를 위한 교과서 및 학습교재 개발

나는 왜 수학을 사랑하는가?

이 경 배 (수학 61)
University of Oklahoma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객원교수

몇 년 전 미국의 어느 일간지에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은 대학교수이다.”라 하고, 이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은 수학선생이다.”라고 한 것을 읽은 적이 있다. 이러한 주장들의 근거가 분명하지는 않았지만(아마도 자연과학이나 공학은 새로운 사실이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이론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지만 수학의 명제는 불변이고, 교과과정이 별로 바뀌지 않으니 가르치기가 수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나에게 아주 기분 좋은 글이었으며, 나는 이중으로 행복감을 느꼈다. 그것은 내가 왜 수학을 좋아하게 되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내 관점에서 보면, 다른 학문들은 어느 것도 수학만큼 단순한 것이 없다. 나는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몇 차례 있었다. 논문 심사장에서 “내가 이 논문에 들어 있는 모든 식을 검토하였고, 그것들이 모두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하면, 전공분야 위원들이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했다. 이러한 경제학 논문을 보면, 여러 개의 변수를 써서 어떤 값 A 를 표현하고 그 변화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의 표현 자체도 문제려니와, 그 값이 또 다른 (아직 사용 되지 않은) 변수들에 의존되고 있음이 명백할 때가 많다. 가령 내일의 물가를 표현하는 데에 몇 개의 변수가 필요할까? 내가 확인했던 것은 단순히, A 의 표현이 옳다고 가정하고, 또 A 를 표현하는 데 사용한 변수들이 그 논문에서 서술한 대로 변화한다면, 거기에 써 놓은 A 의 변화 모양이 옳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은 경제학이 얼마나 복잡한가를 보여 준다. 공



학에서도 이와 같은 경험이 여러 번 있었으며 심지어 물리학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느낀 적이 있다. 그러므로 수학만큼 단순한 학문은 없다고 생각한다.

수학이 다른 학문과 정말로 다른 점은 확실성과 불변성이다. 수학에서의 어떤 명제가 참인 것으로 증명되면, 그 명제는 오늘도 내일도, 100년 후에도 참이다. 다른 분야에서는 똑같은 상태를 설명하는 이론이 한 가지만 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그래서, “ X 의 이론에 의하면...”이나 “ Y 의 이론에 의하면...” 등등의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나는 오래 전에 어떤 공간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 공간이 어떤 성질 P 를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였다. 밤낮으로 6개월 이상을 노력했으나 오리무중이었다. 그쯤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생긴다. 내 명제에 대한 반례(counter-example)를 찾으려 한다. 오랫동안 증명도 반례도 못 찾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방자한 질문을 해 본다. “만약 내가 신(god)이라면 이 명제를 참으로 만들까 아니면 거짓으로 만들까? (참고로, 나는 신의 존재는 믿지 않지만 종교를 갖지는 않았다). 신이 존재하건 안 하건 이 질문에 관한 한, 별 문제 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 공간은 비록 고차원이고 추상적이긴 하지만 내가 그 공간을 만들어 낸 것도 아니고, 분명히 본래부터 존재하며, 나는 단지 그 공간의 성질을 알아내려고 하고 있을 뿐이니까. 더군다나 이 명제는 참(true)과 거짓(false)이 동시에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엄청난 노력 끝에, 결국 그 명제는 참인 것으로 증명되었으며,



앞에 언급한 대로 100년 후에도 참인 명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그 명제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내가 죽은 후에도 관련된 연구는 계속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런 결과가 천체 물리학에 쓰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맹세컨대, 나는 그 누가 이 사실을 사용하라고 연구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수학자로서 199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존 내쉬(John Nash)는 그의 게임 이론이 독과점 시장의 문제를 분석하는 도구로 적용되어 노벨상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예상했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다.”는 답변에서 나는 비슷한 공감을 가졌었다(영화 ‘A Beautiful Mind’ 참조).

수학은 자유롭다. 음악가가 작곡을 하거나, 미술가가 그림을 그리거나, 수학자가 수학을 공부하는 것 등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세상 일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공학이 발달되어 과학의 극치에 다다른 것 같지만, 인간의 지식은 내 생각에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수학이 많이 발전되었을 텐데, 아직도 증명해야 할 게 남아 있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어떤 사건을 요행히도 한 미분방정식으로 나타냈다고 할 때, 그 미분방정식을 풀 수 있을 확률은 0에 아주 가깝다. 일기 예보를 위하여, 구름의 모양을 수식으로 나타내려고 한다면 어찌 하겠는가? 또 임의의 공간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고 물으면, 답은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다.”이다. 이 무수히 많은 문제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여 연구하느냐

하는 것은 나의 자유다. 마치 작곡가가 어떤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여 곡을 만드느냐와 비슷한 처지이다. 물론 그 중에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도 있다.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지만,

2년쯤 전에 나는 뇌종양 수술을 받았다. 뉴욕의 병원에서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 라고 자문해 보았다. 아하, 내 두 아들과 AMS(미국수학회)에서 발행된 나의 연구 서적을 생각하면 나는 세 아이를 둔 것 같다. 그 후 나는 회복되었고, 금년 초에 또 한편의 논문을 고급 논문지에 발표하였다.

얼마 전에 나의 동료 교수가 말하기를, “우린(수학교수들) 거의 항상 우리가 재미있어 하는 일만 하고 있는데도 봉급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아마도, 이 말이 수학 교수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인 이유일지도 모른다. 수학은 순수하고 확실하고 자유롭다. 이렇게 영원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내 삶으로 하고 있으니, 나는 항상 행복하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아주 기초적인 퀴즈가 있다.

(문제) 명제 “모든 X에 대하여, P가 성립된다.”
의 부정은 무엇인가?

(답) “P가 성립되지 않은 X가 존재한다.”

그러나, “나는 항상 행복하다.”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인다. 그럼 그것의 부정은 무엇인가? 부정은, “나는 항상 불행하다.”가 아니고 “나는 불행할 때도 있다.”이다.

2017년 송년회 개최 안내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희망찬 2018년을 맞이하기 위한 연말 송년모임에 동문 선·후배님을 초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오랫동안 격조했던 동문들도 보시고 즐거운
2017년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7. 11. 24(금) 18:00
- 장 소 : 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쥔트홀(시청앞)
- 회 비: 3만원
- 신 청 : 02-720-8116/8120 동창회 사무실

※ 원만한 행사준비를 위하여 ‘참석여부’를 11월 20일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도 불편함 없이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 사범대학 2학기 장학금 수여식



지난 8월 28일(월) 사범대학 10-1동에서 사범대학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이날 장학금수여식은 동창회 산하 청관 및 청석장학회, 최용준 동문의 천재교육 장학금, 관사, 사범대학 발전기금 및 교육연구재단 장학금 수여식이 함께 열렸는데 학장단 및 학과장, 장학재단 임원, 관사장학회 임원, 장학생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증서를 수여하였으며 이규택 사범대학 동창회장 및 이기례 관사장학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청관장학생 이지민(사회교육과) 외 6명, 천재교육장학생 윤용호(수학교육과) 외 19명은 2017년 2학기 등록금 전액, 청석장학생 엄소운(역사교육과) 외 1명은 등록금의 70%를, 관사장학생 파톡프라밋(체육교육과) 외 3명은 앞으로 1년간 매월 생활비를 50만원씩 지원받을 예정이다.

■ 사범대학, 의왕시, 경기외고 지역 교육협력을 위한 협약체결



지난 9월 8일(화) 경기외국어고등학교에서 사범대학과 의왕시, 경기외고가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김찬종 사범대학장, 김성제 의왕시장, 기길운 의왕시의회의장, 이병호 경기외고 교장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협약식에서 의왕시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발전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오피스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의왕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시설을 지원하고, 사범대학은 교육콘텐츠 개발·지원과 의왕시 학교의 인

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교육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2017년 사범대학 대학원생 우정의 날 행사



지난 9월 22일(금) 모교 71동 체육관에서 사범대학 대학원생 '우정의 날' 행사가 오전 11시부터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교수 및 대학원생 약 300명이 모인 가운데 레크레이션, Group Exercise, 단체줄넘기, 계주 등 다양한 체육활동이 있었다. 학기 중이라 공부와 연구로 정신없이 바쁜 대학원생들에게 레크레이션과 스포츠를 함께 함으로써 친목을 도모 및 네트워크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합된 사범대학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2017년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교원 연수회 개최



지난 9월 8~9일 양일에 걸쳐 한국어교원 연수회가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책임연구원 김호정)는 국립국어원(원장 송철의)과 공동으로 '2017년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교원 연수회'를 지난 7월과 8월 각각 서울과 대구에서 총 4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집합 강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치러진 이번 연수회는 한국어교원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의 장이 되었다.

■ 국어교육과



2학기 동문회 장학금 수여식이 9월 5일(화)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거행되었다. 난대장학금(故 이응백 동문이 기탁), 연지장학금(故 정영숙 동문의 유족이 기탁), 운당장학금(구인환 동문이 기탁)과 우공장학금(우한용 동문이 기탁), 교직을 희망하는 우수한 학부생에게 수여되는 다다장학금(이창득 동문이 기탁)과 이영락장학금(이영락 동문이 기탁), '동문 장학금' 및 母科 60돌을 맞아 전 동문들이 모금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국어교육과 60돌 동문장학금'이 수여된 이 자리에는 수상자와 우한용 동문회장, 이창득 동문을 비롯한 母科 교수들이 참석하였다.

■ 영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조찬포럼이 10월 14일(토) 아침 7시 30분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자유한국당 김



성태 의원이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으며, 영어교육과 동문을 비롯 2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 체육교육과



8월 11일(금) '제3회 체우회 골프대회'가 천안상록C.C.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개인전 및 단체전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학번의 많은 동문들이 참가하여 골프를 즐겼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체육교육과 동문들의 화합과 친목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서울시교육청 인사이동(2017년 9월 1일자) (가나다 순)

강성주(역사86)	월계중학교 교감	윤명희(지리85)	서일중학교 교감
강수환(불어82)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장학사	이병은(생물80)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강은숙(체육81)	양원중학교 교감	이병일(윤리86)	불암중학교 교감
고효선(생물81)	북서울중학교 교장	이수만(체육83)	구현고등학교 교감
곽종훈(역사76)	가원중학교 교장	이원경(생물84)	서울시 과학전시관
곽진수(사회76)	세륜중학교 교장	이은영(지리84)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사
권혁미(수학77)	교육연수원 중등교원연수부장	이준용(화학79)	영등포고등학교 교장
김병혁(역사76)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지숙(독어87)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김병호(체육93)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사	이철희(사회84)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장학사
김승익(물리82)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이현준(화학83)	경기고등학교 교감
김신옥(영어83)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임주섭(지학97)	동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열린시민다문화교육 장학관	장보성(국어82)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 학교혁신기획 장학관
김영춘(국어79)	압구정중학교 교장	장성택(체육93)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장학사
김용성(생물74)	세종과학고등학교 교장	전혜진(수학83)	경기여자고등학교 교감
김우경(역사81)	구의중학교 교장	정삼목(국어79)	신원중학교 교감
김정여(수학74)	신림중학교 교장	정원진(수학82)	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
김종우(체육97)	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정재숙(지학84)	강일고등학교 교감
김종현(체육90)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장학사	조경주(생물80)	도봉중학교 교감
김종희(생물77)	역삼중학교 교장	조기범(체육83)	언남고등학교 교감
나정기(교육80)	불암고등학교 교장	조용훈(체육82)	영남중학교 교장
노원경(화학88)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장학사	차혁성(사회79)	수명중학교 교장
류민석(윤리84)	용마중학교 교장	최종석(지리78)	신목중학교 교장
박윤정(수학89)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	하지영(국어81)	목일중학교 교감
배병일(화학84)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 장학사	홍경희(물리86)	신목고등학교 교감
서준형(사회82)	문현중학교 교장	홍정림(생물87)	서울시 과학전시관 장학사
안명심(국어84)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장학사	홍준표(체육81)	삼성중학교 교장
안인숙(수학86)	중부교육지원청 장학사	황석길(교육79)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양영주(물리80)	명일중학교 교장	황옥경(화학77)	봉림중학교 교감

한옥 지은 이야기

성 기 훈 (체육 71)
체육교육과 동문회장
서울교대 교수

지난 4월1일(토) 이규택 회장님을 비롯한 서울사대동창회 임원 아홉 분이 경기도 파주에 있는 고향 집을 방문하셨다. 이 집은 1902년에 지어진 한옥으로 1917년부터 우리 집안 사람들이 살아오고 있다. 증조부 내외분과 조부 내외분이 사셨으며, 아버지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다. 만17세에 시집오신 어머니는 현재 만89세로 이 집에서 72년을 살고 계신다. 2006년 당시 만80세이신 아버지가 작고하신 후 토지를 팔아 상속세를 납부하고 남은 돈으로 2011년에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하였다. 집을 수리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2010년 초이다. 그 동안 생활의 편의를 위해 아버지가 몇 차례 부분적으로 수리하셨던 집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꾸며보고 싶었다.

먼저, 공사를 맡아서 할 한옥 건축 전문가를 찾기로 했다. 2010년 2월 파주시청 문화체육과를 찾아가 한옥 전문 시공업체를 소개받았고 다음날 파주 집에서 시공업체 현장소장을 만나 집수리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시공업체에서는 한옥 설계 전문회사에 설계를 의뢰하였고, 나는 한옥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남산한옥마을, 북촌한옥마을, 덕성여대 덕우당, 강화도 학사재 등을 수 차례 방문하였으며, 한옥 관련 책도 10여권 구입해서 읽었다. 또한 한옥 전문가들을 만나 한옥 건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고, 몇몇 전문가는 파주 집으로 초대하여 다양한 조언을 얻었다.

2010년 9월 설계회사와 시공업체로부터 설계 도면과 공사비 내역서를 받았다. 그러나 공사비 내역이 개인집 공사에는 적절하지 않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 설계비만 지불하고 공사는 직영 형태로 하기로 하였다. 즉 목재, 기와, 미장, 전기, 중장비, 석재, 창호, 칠, 채, 인테리어(배관, 난방, 도배, 장판, 마루, 타일 등) 일을 할 사람을 따로 선정하여 공사를 맡겼다. 한옥 건축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어 각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를 구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목재 일을 하는 도편수에게는 현장 소장 역할도 부탁하였다.

집 구조는 외형은 그대로 유지하되 생활의 편의성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즉 사랑채의 경우 사랑방은 온돌과 굴뚝을 존속시키고, 문간방(1960년대까지 외양간이었음) 옆에 작은 창고 자리에 부엌과 욕실을 설치하였다. 안채의 경우 부엌과 다락방을 안방과 욕실로 바꾸고, 안방을 부엌으로, 건넌방 옆에는 작은 화장실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2011년 3월 12일 공사가 시작되었다. 사랑채를 먼저 하였다. 사랑채는 광(큰 창고), 마루방, 사랑방, 문간방, 작은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내부에 있던 물건을 바깥 창고로 옮기고 고사를 지냈다. 약 10개월 공사를 하면서 고사를 네 번이나 지냈다.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 사랑방 온돌과 굴뚝을 완성했을 때, 안채 상량식을 했을 때, 안채 기와공사를 끝냈을 때 지냈다. 기단, 기둥, 보를 제외한 기와, 지붕에 흙, 서까래, 벽, 정원수 등을 제거하였다. 이 집은 대지가 1,821㎡(552평)이고 집 안팎으로 정원이 있는데 앞마당에 있던 정원은 없애고 뒷결과 건물 밖 정원에 있던 등나무, 목련, 단풍나무 등 큰 활엽수를 제거하였으며 집 안팎으로 많이 있던 회양목도 대부분 없앴다. 큰 활엽수는 건물을 가리고 낙엽이 많이 생겨 한옥 정원에서는 잘 심지 않는 나무이고, 키가 큰 회양목이 정원 가장자리에 많이 있었는데 바람을 막아 다른 나무에 해가 된다고 하여 제거하였다.

3일 동안 발생한 폐기물들을 화물차로 반출하였고 새로운 목재를 반입하였다. 목재는 기둥 아랫부분을 교체(동바리)할 것과 기와를 얹게 될 서까래가 대부분이었다. 서까래는 썩지 않은 것도 모두 철거하였는데 이유는 기와 무게 때문이다. 옛날 기와(추위에 약해 추운 지방에서는 동파 우려가 있다고 함)는 가벼워 서까래가 굽지 않아도 괜찮았지만 요즘은 기와는 옛날 기와보다 3배 정도 무거워 서까래가 굽어야 한다. 한옥의 목재는 3년 정도 건조시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마르지 않은 목재는 후에 뒤틀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도편수의 소개로 3년 건조한 좋은 서까래를 구할 수 있었다. 목재는 대패질로 다듬어 사용하게 된다. 이를 치목이라고 하는데 바깥 마당에서 약 15일 정도 사랑채에 사용할 목재의 치목을 하였다.

새롭게 지붕에 얹을 기와와 흙, 서까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하여 주춧돌 밑을 튼튼하게 하는 지반공사(그라우팅)를 하고, 4월 1일부터 약 1개월 동안 교체할 보와 기둥, 서까래 설치가 이루어졌다. 4월 9일과 10일 담장 외곽 하수관을 새로 설치하고 5월 1일부터 15일 동안 기와공사가 이어졌다. 전선 매립 공사도 함께 행하여 졌으며,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동안 서까래 사이 흙 바르기와 회 바르기, 벽돌 쌓기, 벽 외역기, 벽 황토 바르기, 사랑방 온돌 및 굴뚝 쌓기 등 미장 공사가 진행되었



다. 6월 8일 앞 마당과 바깥 마당쪽 채를 설치하고, 6월 14일부터 10일 동안 목재 칠 공사를 하였다. 6월 20일부터 3일 동안 창호(문과 창문)를 설치하였으며, 7월 5일과 6일 도배, 장판, 마루깔기 등을 하였고, 7월 9일 안채 철거를 위해 안채에 있던 물건을 사랑채로 옮겼다.

7월 10일 안채 공사를 시작하였다. 안채는 부엌, 다락방, 안방, 대청마루, 건넌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0여일 동안 기둥과 보를 제외한 기와, 서까래, 벽 등을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를 하였다. 7월 22일부터 약 10일 동안 토방 장대석 설치와 뒤뜰 올라가는 돌계단 쌓기를 하였고, 8월 5일과 6일은 빗물이 건물 내로 스며들지 않게 건물 외곽에 배수구를 파고 돌을 깔은 후 유공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이전에는 집안에서 집밖으로 나가는 배수구가 남쪽으로 한 곳 있었는데 동쪽에도 배수구를 설치하여 비가 많이 올 경우 빗물이 밖으로 빠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8월 18일부터 교체할 기둥과 보의 치목과 조립이 이루어졌으며 9월 1일부터 서까래 설치가 진행되었다. 9월 20일부터 약 1개월 동안 수장 목재 치목과 수장 드리기가 이루어졌으며,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기와 얹기를 하였다. 10월 3일부터 서까래 칠하기, 10월 5일 채하기와 배관(상수도, 정화조, 온수, 전기) 설치하기,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옥내 전기 케이블 설치가 이어졌다.

10월 9일부터 12월 2일까지 담장 공사를 하였다. 담장은 기존 담을 철거하고 땅을 파서 기초를 한 다음 돌을 쌓고 메지(

돌과 돌 사이 회 바르기)를 하였다.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장독대와 뒷걸 화단 축대 쌓기, 10월 29일과 30일 옥내 기포(바닥 콘크리트)하기, 11월 2일과 3일 난방 액셀과 철사 깔기, 11월 5일 난방 몰탈 씌우기, 11월 9일과 10일 주방 및 화장실 타일 붙이기, 11월 11일과 12일 가스보일러 설치, 11월 16일과 17일 욕조, 세면기, 거울, 벽장, 변기 설치,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기와 얹기가 이루어졌다.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안마당 흙을 퍼내고 레미콘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한 다음 굵은 마사를 깔았다.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 창호를 설치하였으며, 12월 20일과 21일 도배와 장판을 하고 전등을 달았다. 12월 24일 사랑채에 옮겨놓은 안채 물건들을 다시 안채로 옮기고, 2012년 1월 9일과 10일 대문과 광에 장식, 창문 덧문에 창문 고리를 부착하였으며, 1월 15일 마을 주민들과 공사에 참여했던 분들을 초대하여 집들이를 하였다.

요즈음 한옥에 대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으며 한옥을 지으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한옥은 나무, 흙, 돌 등 자연 재료를 많이 사용하여 짓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한옥은 외형은 아름답지만 생활하기 불편한 점이 많다. 따라서 한옥은 전통 형태를 유지하면서 생활에 편리하게 내부를 꾸미는 것이 좋다. 난방은 보일러로, 부엌은 입식으로, 창문은 방충망, 유리문, 덧문을 함께, 화장실은 방마다 설치하는 것이 좋다. 집 지은 지 5년이 지났다. 외형은 아름답고 생활하기에도 편리하다.

교육이 행복인 세상

최 돈 형 (물리 68)
국가환경교육센터 센터장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교육은 곧 행복이다.” 누가 나에게 교육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평생 교육을 다룬 사람치고는 단순한 결론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교육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을 나는 아직 찾지 못하였다.

우리는 교육을 왜 받을까? 또 왜 교육을 할까? 교육학적 관점에서는 학습자의 자아실현을 위해, 사회화를 위해, 또는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같은 답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교육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이다. 교육은 학습자의 변화를 통해 학습자가 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고, 사회화와 사회의 변화를 통해 보다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에 있어서는 중독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엄청난 열정을 보인다. 어린 아이부터 은퇴자까지 교육과 학습이 반복되는 삶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서도 ‘태교’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하는 마당에 더 말해 무엇 하랴. 이런 분위기라면 조만간 죽은 사람을 위한 교육이 등장할지도 모르겠다.

정말 교육이 행복을 위한 것이 맞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교육을 받으며 기뻐하는가? 즐거운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교육을 더 받길 원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교육이라고 부르며 하고 있는 행동이, 혹은 교육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당면한 한계와 문제는 고질적이다. 수십 년 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들을 해 보았고, 교육계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그 누구도 좋은 성적표를 받지 못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교육 받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커녕 OECD 최하위의 행복 지수와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고,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얼마 전 새 정부는 수학능력시험의 구조를 바꾸고,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조정하는 등의 교육 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정상화되고 행복을 위한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러한 시도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 믿는 사



람은 드물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없는 것일까? 당면한 교육계의 문제를 완화하고, 행복을 위한 교육으로 되돌릴 방법이 있다. 그건 바로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으로 우리 교육을 전환하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이란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정의된다(UNESCO, 2012).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낯선 이름일 것이다. 특히 일반 시민들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교육이 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지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많은 교육자들은 국민의 기초소양교육이 충분하게 실현되면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지며, 지구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기초소양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산업화에 뛰어들었을 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구 규모의 환경 재난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오존층 파괴, 사막화, 지구온난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분쟁과 빈부 격차에 의한 사회적 문제들이 만연하게 되었다. 심지어 산업화를 충분한 수준까지 이룬 국가에게도 이런 문제는 예외가 아니다. 새롭게 부각된 문제들은 과거 우리 인류가 겪었던 문제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이런 문제들은 어느 하나만으로도 인류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몇몇 국가가 나선다고 해결되지도 않는다. 어찌 보면 우리 인류는 단지 더 잘 살고 더 행복해 지길 원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인류와 지구의 모습은 행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과정은 보다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그 과정과 결과가 행복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모습과 묘하게 닮아 있기도 하다. 따라서 기초소양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지속가능한 국가(사회) 실현은 불가능하거나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는 기초소양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이에 더해 국가와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것에

많은 교육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제 사회는 지구가 보다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1992년에 개최된 유엔총회에서 앞으로 지구의 발전 방향은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게 된다. 인류가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은 각각의 국가(사회) 상황에 따라서 '환경과 경제와 사회 영역'이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속가능발전은 세 영역(차원)에서 얼마나 큰 성취를 이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 영역(차원)이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새천년을 맞이해 제시했던 목표(2000년~2015년) 이후,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세상을 바꾸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로서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 241개 이행 지표 및 이행체계를 제

시하였다. 200개 이상의 국가들이 SDGs에 서명(동의)했고, 우리나라도 당시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 서명을 하고 돌아왔다. 적어도 지금부터 15년 동안 지구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뛰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표는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지구의 지속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은 인류가 지속가능발전에 보다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육인데, 시민들이 더 행복해지고 그로 인해 사회와 국가, 지구가 오랫동안 행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목표와 내용, 방법이 이미 개발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한 활동과 연구가 20여 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교육과 조금이라도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교육과 관련이 없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쏟길 바란다.



진동섭(교육 72, 모교 교육학과 교수)

동문이 지난 8월 31일 25년간의 재직 기간을 마치고 퇴임하였다. 진 교수는 재직 기간 중 대통령 자문위원을 거쳐 한국교육개발원장,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 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해왔으며, 상향식 교육개혁을 제안하는 '학교 컨설팅 이론'과 교사의 재량으로 효율적인 수업을 설계하는 '교육 디자인 이론'을 창안하기도 했다.



유성상(교육 90, 모교 교육학과 교수)

동문이 지난 9월 <배움의 조건: 영화 속에 담긴 13가지 교육이야기>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다양한 영화 속 이야기들을 소재로 하여 배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탐색하고 있다.

이상무(교육 98) 동문이 지난 9월 1일자로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김훈호(교육 박사 14졸) 동문이 지난 9월 1일자로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박성종(국어 71, 가톨릭관동대 명예교수)

동문은 지난 7월 18일 제62회 인문학 부문 대한민국학술원상을 수상하였다. 박 동문은 이두(吏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던 차자 표기법) 연구에서 독

보적 성과를 쌓았고 이두와 관련된 모든 고문헌을 섭렵해 국어학적인 관점에서 정밀 분석·고찰한 2권의 저서와 2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윤여탁(국어 74, 모교교수) 동문이 지난

6월 15일 '2017년도 1학기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을 수상하였다. 윤 동문은 한국 현대시 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 교육 등에서 많은 학문적 성과를 산출하였으며 현재 서울대 BK21플러스 창의적 국어 교육 미래인재양성사업팀장과 한국어문학계의 모학회인 국어국문학회 대표이사, 한국인문학총연합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2016년에는 2015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인 『한국어교육학 사전』(2014)의 연구책임자 공적을 인정받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심규선(국어 76, 동아일보 고문) 동문이

이 지난 9월 19일 더 플라자호텔에서 제18회 일한문화교류기금상을 수상하였다. 심 동문은 언론인으로서 한일 양국간의 입장 존중을 통한 과제 극복을 호소하는 등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한문화교류기금상을 수상하였다. 우한용 동문회장을 비롯한 많은 동문들이 시상식에 참석하여 심규선 동문의 수상을 축하하였다.



변주선(영어 60,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동문이 금아피천득선생기념회 제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금아피천득선생기념회는 지난 3월 금아 피천득(1910~2007) 선생의 유족과 제자들을 중심으로 발족한 단체로 학술대회 개최, 문학상 제정 등 금아 문학을 널리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변동문은 ‘금아피천득선생기념회 제2대 회장으로 선정된 것에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앞으로 피천득 선생의 높은 문학성을 기리고, 문학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금아피천득선생기념회는 10월 일반 대중을 위한 ‘피천득 다시 읽기’ 강연회를 진행하고, 피천득 선생 서거일인 5월에는 매년 학술세미나 및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식(영어 72, 전 KBS 본부장) 동문이 제 54회 방송의 날을 맞이해 방송진흥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은관 문화훈장을 수상하였다. 이 동문은 KBS 역사와 문화관련 기자로 34년간 재직하면서 백남준 국내 최초 소개(84년), 실�크로드 최초 답사 등 뛰어난 취재와 제작으로 문화와 역사 보도 발전에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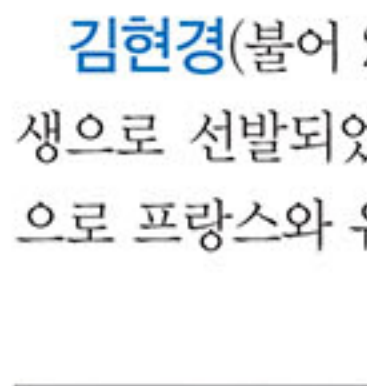
김성태(영어 75, 국회의원) 동문이 지난 8월 29일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으로 송파지역 자유한국당 사무소를 개소하였다. 지난 1월에는 2016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하였는데 이 상은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를 비롯한 13개의 시민단체가 언론기자, 정당 관계자,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로 ‘의정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전체 국회의원 정원의 5% 내외, 의석비율대로 한 해 동안 정책으로 가장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심덕섭(영어 81,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 동문이 지난 7월 26일 국가보훈처 차장에 임명되었다. 1986년 공직 생활을 시작, 행정안전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지방자치와 조직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심 동문은 평소 업무에서 솔선수범하고 직급을 가리지 않고 직원 누구에게나 인간적으로 대해 조직 내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장관급 조직으로 격상, 차장 역시 차관급이 됐다.



전경하(독어 87, 서울신문 산업부 차장) 동문이 지난 6월 19일 서울신문 정책뉴스 부장에 선임되었다.



김현경(불어 2011, 수원외고 교사) 동문이 2017년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되었다. 프랑스에서 2년간 유럽지역연구의 일환으로 프랑스와 유럽의 교육 문제를 연구하게 된다.



민병관(역사 79, 양재고 교장) 동문이 지난 6월 28일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의 제9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민동문은 현재 서울국공립고등학교장회 회장과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회장을 함께 맡고 있으며 성균관대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청량고등학교 초빙교장을 지낸 후 현재 양재고등학교 교장으로서는 풍부한 교육현장 경험은 물론 중앙과 서울시교육청의 다양한 교육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다.



박남규(화학 81, 성균관대 교수) 동문이 학술정보기업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Clarivate Analytics)’가 선정한 올해 또는 가까운 장래에 노벨상 수상 유력 후보로 뽑혔다.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선정 22명의 피인용 우수연구자 수상자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박 동문은 차세대 태양전지로 불리는 ‘고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페로브스카이트 : 반도체 · 반도체 · 도체 성질과 초전도 현상까지 보이는 특별한 구조의 금속 산화물로 실리콘의 뒤를 이을 차세대 주자로 꼽히고 있다) 를 지난 2012년 처음으로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준수(체육 86, 전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동문이 지난 8월 1일 스포츠안전재단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김 동문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준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사무총장은 “재단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창회비 납부안내!

동문간의 교류지원, 친목 도모, 동호회 활동지원, 각과 동문회의 활성화와 같은 동창회 일을 추진하는 일은 동문 모두의 바램입니다. 이는 동문의 애정과 응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창회비의 납부가 튼튼한 동창회의 초석이 됩니다.

자! 우리 모두 동창회비를 납부하여 탄탄하게 발전하는 동창회의 모습을 보도록 합시다.

■ 계좌번호 : KEB하나은행 221-910002-43405 (예금주 : 이규택)

※ 문의처 : 동창회 사무실 Tel. (02)720-8116, 8120

(2017년 9월말 현재 회비 납부 누계액 : 8,060천원)

회 장	: 2,000,000원
고 문	: 300,000원
자문위원	: 200,000원
부회장·감사	: 300,000원
이 사	: 50,000원
일 반	: 30,000원
평생회비(1회)	
이 사	: 400,000원
일 반	: 200,000원

회비 납부자 명단

(2017. 07. 01 ~ 09. 30)

평생회비 (20만원)

김영순(수학 58) 윤동열(화학 69)
이창득(국어 71)

고문·임원·이사회비

변주선(영어 60)	30만원	박찬구(국어 56)	5만원
강의정(영어 61)	30만원	목창수(생물 66)	5만원
이용현(물리 53)	5만원		

일반회비 (3만원)

〈교육〉	김연성(71)	3만원	
유봉호(48)	3만원	〈물리〉	
양덕배(61)	3만원	하상기(74)	3만원
〈국어〉	〈생물〉		
탁은수(61)	3만원	김여순(50)	3만원
김경수(63)	3만원	조청재(61)	3만원
〈영어〉	〈체육〉		
정기숙(55)	3만원	윤종상(52)	3만원
배영철(79)		유명수(61)	3만원
〈사회〉	〈과학교육생물전공-석사〉		
주봉노(55)	3만원	이충현(2008)	3만원
〈역사〉			
이희환(56)	3만원		

♥ 동문님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동문동정란은 여러분의 소식지입니다. 승진, 영전, 출판, 수상 등 좋은 소식을 모든 동문과 함께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소식을 알려주세요~

원고모집

동창회보에 게재할 동문들의 원고를 모집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원고주제 : 자유(시, 수상, 여행기, 동호회 활동기, 주변 잡기 등)
- ♥ 원고마감 : 수시
- ♥ 원고매수 : 한글파일 10폰트 A4용지 1장~2장 이내
- ♥ 제출처 : 우 편 : 03740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1010호(충정로, 피어리스아파트)
E 메일 : snueaa@hanmail.net

공지사항

2015년 11월부터 회비를 납부하신 동문님께 감사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비를 납부하신 동문님의 연락처가 없어 감사 문자를 드리지 못한 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회비를 납부하신 동문님께는 연하장도 발송하고 있사오니 회비를 납부하신 후 동창회 사무실로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지로용지로 납부하시는 동문님도 여백에 꼭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회보】(1호~4호)를 찾습니다.

본 회 비치용으로 동창회보 1~4호, 42~43호, 53호를 소장하고 계신 동문님이 계시면 연락바랍니다. 회보 복사 후 원본은 돌려드리겠습니다.

▶ 1~4호는 1978년도부터 찾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20년의 경험과 노하우로
전문성을 갖춘

대림성모병원 유방센터 Breast Care Center

진료분야

유방검진

유방통증·부유방

여성형 유방·mamotome

유방암·유방성형

유전자 검사

약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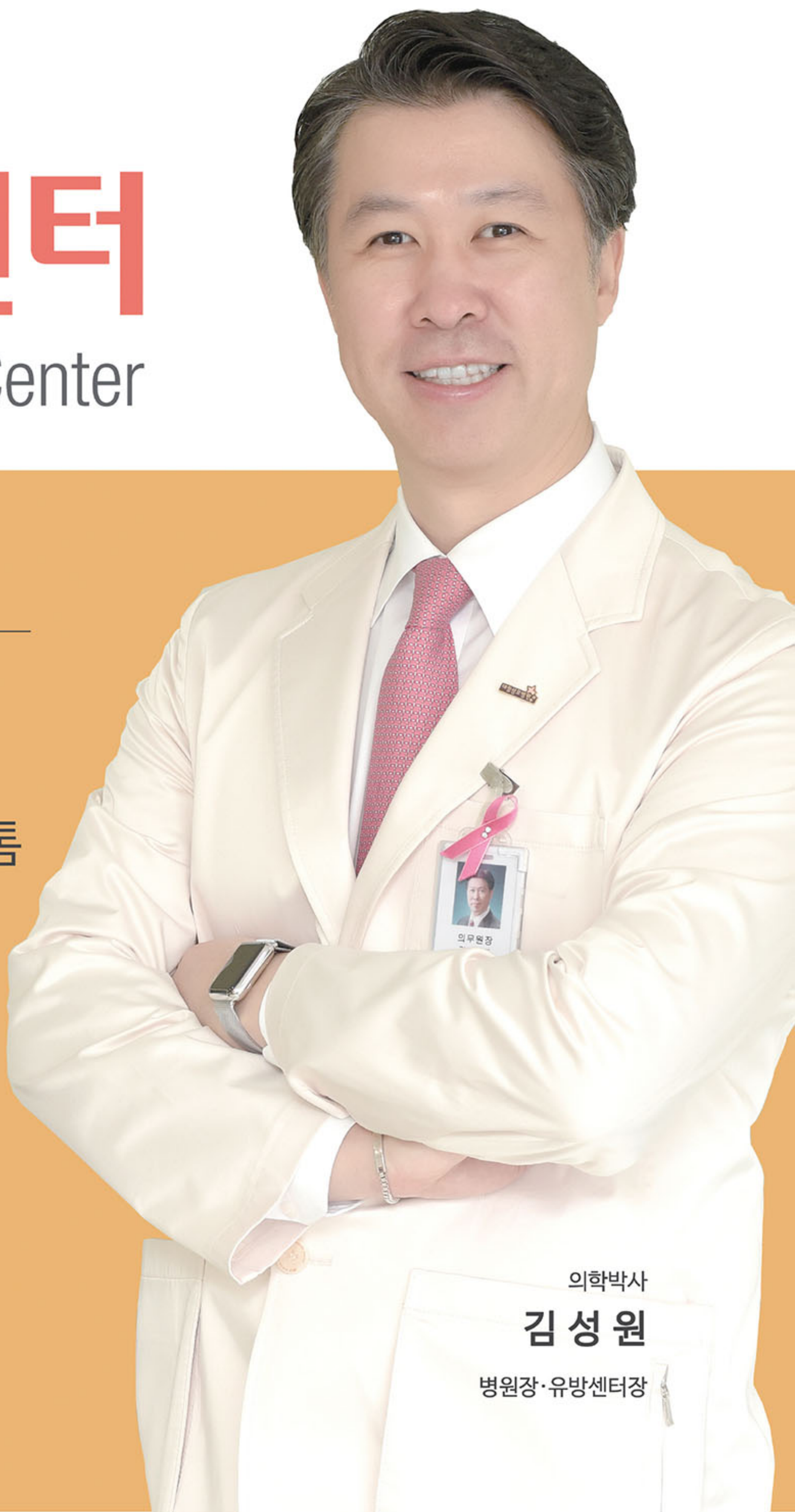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석사·박사 취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한국유방암학회 이사

한국인유전성유방암 연구 책임연구자

유방질환 세부전문의 / 임상유전학 인증의



의학박사

김 성 원

병원장·유방센터장